



필그림 지구촌교회

Pilgrim Jiguchon Church

치유와 변화의 공동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5:17)

담임목사: 이근선목사(Stephen K.Lee)
전화: 0411 50 9191, 0411 68 9191
메일: pilgrim.jiguchon@gmail.com
웹사이트: <http://pilgrim-church.au>
주소: 134a Parkland Dr, Springfield Central

주일예배

오후 1:00 인도: 이근선 목사

*찬양 주께서 다스리시네 다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릴 사용하소서

목회 및 봉헌기도 인도자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환영 및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창세기 4:3-9 다같이

공동기도 황사라 목사

설교말씀 원시 예배 소진석 목사

주의 만찬 다같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다함께

*축복의 기도 소진석 목사

*표시에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기도제목

1.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정되고
확전되지 않도록

2. 필그림 지구촌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환영합니다 Welcome!

환영 오늘 필그림 지구촌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오늘 말씀은 부산 예일침례교회 담임하시는 소진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카드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옆의 QR코드를 이용해 기도제목을 작성해 주시며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https://bit.ly/pj-prayer>).

교인등록카드 교회등록을 원하시면 옆의 QR코드를 이용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헌금 계좌를 참고해 주세요.



방문카드 작성



중보기도 카드



교회 등록카드

Pilgrim Values 필그림지구촌교회는 복음과 필그림성경공부를 통하여 목장공동체와 쉼의 가치를 이루어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습니다.

온라인 헌금안내

BSB: 034439

Account Number: 338783

Name: Pilgrim Jiguchon Church

묵상의 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알료사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사

솔제니친은 이반을 통해 혹독한 수감 생활의 어느 하루를 스케치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묘사하며 조명하는 한 인물은 바로 알료사입니다. 침례교 신자인 알료사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일요일이면 몇몇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반의 눈에 알료사는 바보스럽습니다.

"알료사도 돌아왔다. 착하다고 할까 어수룩하다고 할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무런 이득도 취할 줄 모른다."

"알료사는 누가 무엇을 부탁해도 거절하는 법이 없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료샤 같다면 슈호프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게다."

"슈호프 곁에 있던 알료샤가 아침에 해를 보자 반가운 듯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움푹 패인 두 볼,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고 배급받는 식량만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하죽거리는지 모른다. 수용소 내의 침례교 신자들은 일요일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 속삭이곤 한다. 그 친구들에겐 수용소 생활 같은 건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혹독한 수용소에서 알료사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합니다. 그래서 더욱 인상적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알료사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 이반과 성직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셋째 아들 알료사. 이반에게는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지만, 알료사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심지어 그루셴카 같은 여인도 누이를 대하듯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반마저도 알료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끈적거리는 새 이파리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널 상기함으로써만 그렇게 될 거야. 이 세상 어딘가에 네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겐 충분하고, 삶에 싫증도 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네게 충분하겠니? 뭣하면 사랑 고백이라고 해도 좋아."

두 알료사는 시대의 사람들처럼 약삭빠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눈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또 다른 소설 『백치』의 미시킨 공작은 또 다른 '바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지옥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이런 거룩한 바보들이 아닐까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 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네게 억지로 오 리를 가져가거든 십 리를 가 주어라"(마 5:39-41, 현대인역).

교회모임 안내

주일예배	매일 묵상 본문	
주일 오후 1:00	월	대상 23:1-32
	화	대상 24:1-31
	수	대상 25:1-31
	목	대상 26:1-32
	금	대상 27:1-34
	토	대상 28:1-21
	일	대상 29:1-19

성경공부 과정

	기초반 (전교인필수)	제자반 (제직필수)	목자반 (목자필수)	지도자반 (영구제직필수)
필수 과정	새생명의 길 새가족의 길 목장교회의 길	제자의 길 새공동체의 길	목자의 길 목장모임인도법 목장교회 사역	영성의 길 사역의 길 성경적 지도자의 길
열린 과정	영성큐티, 영성기도, 부부순례의 길, 세상중보의 길, 구속사의 길, 기독교 교리의 길, 경건의 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뷰티플레이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의 비전 : 우리는 복음적 가르침을 통한 영적인 변화, 목장교회를 통한 성경적 공동체, 쉼마 교육을 통한 다음세대 신앙계승, 복음전도와 이웃사랑 실천으로 치유와 변화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 우리의 정체성** : ①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②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섬기는 가족입니다.
③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④우리 모두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⑤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